

현역의원 30명 원내 3당... 지방선거 '의미있는 성과' 과제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바른미래당' 출범

원내 제 3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치권이 '신(新) 다당제'로 재편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임기 합동회의를 열어 주요 당직자 인선을 포함한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출범대회'에서 합당안을 추진하고 '바른미래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선임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합당과 동시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났다.

바른미래당은 호남의 합리적 중도세력과 영남의 개혁적 보수세력이 손을 맞잡고, 민주당과 한국당 등 기득권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허무는 '대안정당'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국민의당 소속이던 호남 지역구 의원들 대다수가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뛰쳐나가면서 의미가 다소 약해졌다.

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0석 규모의 바른미래당이 원내 제3당으로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운영과정에서 민주당과 함께 캐스팅 보트를 분점하게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공동대표 체제 출범과 더불어 지도부 체제 인선과 당의 정체성을 담은 정강·정책대 마련했다. 최고위원은 양당에서 각각 2명씩 선임되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동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강령에서는 이념 표현을 배제했다. 이념 중심의 정당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중도·보수라는 표현은 빼고, 미래정당으로 간다는 정신을 강령에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강령 '보수·중도·햇볕' 배제

포함하기로 했다.

대북정책에서도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햇볕정책 계승'을 명시화하지 않고, 남북 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튼 '6·15 선언' 정신 등을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형태로 내부 조율이 이뤄졌다.

이처럼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아

우른 '제 3세력'을 표방한 바른미래당 창당으로 원내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평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4석(정세균·이정현·손금주·이용호)으로 변화했다. '2강 2중' 형태로 재편된 것이다.

큰 틀에서 범보수와 범진보로의 재편 속에 여야의 원내 전략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등은 첫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는 안정적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

압승이 절실하고 한국당 역시 보수세력 결집을 노리기 위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정면 승부가 예상된다"며 "신생 정당도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합당 및 창당의 위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정계개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호남 세력을 분리하며 중도보수세력이 결집했다면 장기적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포함해 한층 광범위한 연합집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유승민(왼쪽)·박주선 공동대표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넘쳐나는 광주 만들겠다"

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선언...명부 유출 의혹 해명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이 전 부위원장은 13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그간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전문가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역량을 정의롭고 풍요한 광주 건설에 쏟아 고향분들의 은혜에 결초보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끈끈한 15년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광주시민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광주를 3강(의창·체

항·미향)의 가치를 가진 도시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해 사직 시기를 정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출마를 고려해주시며 상대를 비방·모함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과거 선거과정에서 확보한 70만명의 전화번호 중 일부에 문자를 발송했으며 선거 관련 내용도 아니었다"며 "모든 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혜자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역임한 박혜자(사진) 전 의원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을 준비 중인 박 전 의원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정치 복원과 문재인 정부 지원 등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재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광주 완패와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번에는 깨끗한 능력을 갖춘, 이길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어려움 빠져 있을 때도 당을 지킨 독심과 열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4차산업 혁명, 자치분권 개선, 일자리 혁

신이 광주에서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래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19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정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광주서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당 최고위원과 시장 위원장직을 맡아 광주시 국비확보, 5·18 왜곡설화 고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관철 등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박근혜·우병우·조원동만 남았다

朴 내달말 첫 선고 이뤄질 듯 특활비 등 별도 재판은 계속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범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도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

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

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 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서 이미 결심 절차

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에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범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동반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무안공항 출발]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 **[폭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야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돗토리(12:20) / 돗토리(13:00) → 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 **[폭격]** 678,000원 ~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 **[폭격]** 828,000원 ~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돗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후에·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변동요율 기준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노옵션]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회보증: 여행객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책임보험: 1억원, 국내생활 5천만원), 관광진흥회(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비(항공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객비 1인 결제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보험(대, 기,사/기,도) 분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발행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